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의식의 기저에 있는 심리 문화적 토대를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람 신뢰의식의 토착심리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064명으로서, 학생 418명(중학생 218명, 대학생 200명), 성인 646명(중학생의 부모 218명, 중학생의 모 218명, 교사 210명)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자료는 2003년 4월-6월에 수집되었다.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 정치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부정적인 지각(불신, 정치인 자질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필요성)을, 한국 경제에 대해 84.9%가 부정적인 지각(불안, 불경기, 구조적 문제, 불평등, 비관적)을, 한국 사회에 대해 78.2%가 부정적인 지각(부정부패,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을 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각(자부심,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적)이 54.3%, 부정적 지각(주체성 상실, 문화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 45.7%를 차지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 지각(이기적, 도덕성 결여, 조급성, 체면/권력지향)이 58.6%, 긍정적 지각(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이 41.4%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 이유로는 우리나라(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대한 불신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두 측면이 논의되었다. 1)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효능적 신념의 필요, 2)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

주요어 : 사회적 표상, 한국 사회와 사람, 신뢰, 불신, 토착심리학, 관계지향 문화, 도덕성

[†] 교신저자 : 김의철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uicholk@chol.com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어떠한가?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 왔다. 한덕웅(1994)은 한국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각이 어떠한지에 대해 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대학생과 성인 1,812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유반응 하도록 하였을 때, 응답자의 50% 이상이 지적한 16개의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1) 환경오염, 2) 정치인 부정부패/ 부조리, 3) 교통 체증/ 교통난/ 낮은 도로율, 4) 식수 오염, 5) 산업폐기물/ 공장 폐수 처리, 6) 입시 위주의 교육, 7) 성범죄 증가/ 여성치안 부재, 8) 대기 오염, 9) 부유층 과소비/ 불로소득자 호화생활, 10) 농촌 농수산물 수입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11) 청소년 가치관 혼란, 12) 중소기업 도산, 13) 강력범죄 증가/ 흉악화, 14) 교육의 창의력/ 사고력 개선, 15) 지방대 출신 취업난, 16) 대학입시 지옥. 이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과 더불어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1990년대 초엽의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대학생 응답자의 71.12%, 성인 응답자의 62.69%가 지적하였다.

한덕웅과 강혜자(2000)가 대학생과 성인 1,771명을 대상으로 1990년대 말엽에 분석하였을 때, 국민들의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회문제는 9개로 나타났다: 1) 정치인의 부정부패/ 부조리, 2) 환경오염, 3) 공무원 부정부패/ 부조리, 4) 입시위주 교육, 5) 높은 실업률, 6) 집단 따돌림/ 왕따, 7) 권력형 비리/ 부당한 관권 개입, 8) 정치적 무능, 9) 지방대 출신 취업난. 선행연구(한덕웅, 1994)에서보다 사회문제의 수와 문제영역이 감소되었으나, '정치 부정부패'에 관한 반응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

이 매우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김묘성, 김의철과 박영신(2002)이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선행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 강혜자, 2000)와 일치하였다. 즉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자유응답하게 하였을 때, 응답자의 과반수가 부정부패(50.4%)라고 반응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기주의(12.3%) 권력남용(9.7%) 부정직함(8.9%) 과별주의(8.9%) 전문성 결여(7.5%)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 청소년들은 정치 지도자가 전문성이 없고 무능력하다는 인식보다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을 훨씬 많이 하고 있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정치 외에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표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2)은 한국 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해 고등학생과 아버지 집단 1,00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유반응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정부패/ 비리'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결국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나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태연(200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집단 모두, 한국 사회를 현실인식차원, 무규범성, 정치적 통제감, 소외의식 및 주관적 안녕감의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단순히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박은실,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200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국민들의 노력(28.1%) 경제적 요인(22.5%) 문화/ 여가생활(18.9%)이 대표적이었고, 이외에도 원만한 인간관계, 교육수준, 올바른 정책이 포함되었다. 한편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는, 경제 불안(24.3%)과 정치 불안(18.9%)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고 이외에 시민의식 결여, 부정부패/ 비리, 집단 이기주의, 여가생활 부족, 과도한 교육열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경제나 정치의 불안을 삶의 질을 낮추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2)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점을 질문하였을 때, 단결, 월드컵 성공개최, 전통 문화, 강한 의지력/ 끈기, 민족적 자부심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2년 6월에 FIFA 월드컵 축구가 있는 직후, 자료가 수집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단결'과 '월드컵 성공개최'라는 반응은 월드컵 축구 개최 결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전통 문화'가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전통 문화'라는 의미 속에 포함된 구체적인 표상은 한국인의 '정' '공경심'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전통 문화' 다음으로 한국인의 '강한 의지력/ 끈기'가 한국 사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전통 문화와 사람들의 인정 및 의지력 등 인간요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태연과 류원정(2004)이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남녀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아이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을, 바람직한 어른은 호감성, 성실성의 성격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은 무엇인가?

한국 문화의 특징과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이 점차 대두되면서, 최근에 이론적으로 체계화(조궁호, 2003; 최상진, 2000) 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부모자녀관계, 성취, 스트레스, 일탈행동 등 다양한 심리 행동 특성들에 대해,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 Kim, Park, & Park, 1999)하는 시도가 있었다. 특별히 신뢰의식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동서양의 신뢰 구조가 다르기(김의철, 박영신, 2003;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Kim, 2003) 때문에, 문화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한(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은, 신뢰의식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 특유의 토착심리(Lee, Park, & Kim, 2004; Park, Kim, & Lee, 2004)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은 중 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을 탐구한 결과, 한국 사람의 신뢰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토착적인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1)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신뢰보다 특별한 관계와

관계 역할 그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2) 능력차원보다 도덕성차원에 초점을 둔 인간관계 신뢰, 3)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신뢰보다 정서교류적인 지원에 기반을 둔 신뢰, 4)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로서 윗사람의 희생과 헌신, 5) 가족관련 가치의 유지, 6) 신뢰형성과정에서 가족관계의 확대현상. 여기에서는 여섯 가지의 특성 중에서 앞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계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신뢰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신뢰하기 보다는,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와 그 사람의 관계 역할 그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예를 든다면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의 다른 이유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즉 '내 아버지이니까, 내 어머니이니까, 내 부모이니까 믿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를 무조건 믿는 태도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즉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이니까'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관계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어머니가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어머니가 교사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였다. 즉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교사가 교육자의 역할을 하니까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며 다른 이유가 필요없다는 반응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학부모 입장에서의 교사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교사학생관계를 바라보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에 대한 신뢰의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학생들은 '스승에 대해 무조건 신뢰'한다는 반응을 하였다. 즉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특별한 인간관계 그 자체가 무조건 신뢰해야 하는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 성인들의 배우자와 관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 중에,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라는 반응이 있었다. 즉 배우자이므로, 인생의 동반자이므로, 내 가족이므로 무조건 믿는다는 반응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친구를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었다.

둘째,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에서든 능력보다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상대방을 신뢰하였다. 청소년이 부모나 친구 및 교사에 대해, 그리고 부모가 자녀나 배우자 및 교사에 대해, 개인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정직함과 같은 도덕성을 현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평소 생활태도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성실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정직하고 믿음직하며 올바르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직함'을 세 번째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 둘을 합하면 40% 이상으로서, 성인의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이 성실 정직을 배우자 신뢰의 이유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도 '성실함'과 '정직함'이었는데, 이 두 반응을 합하면 60% 이상으로서, 10명 중에 6명의 부모가 자녀의 성실 정직을 신뢰의 이유로 지적하였다. 학부모로서 어머니집단이 교사를 신뢰하는 세 번째 대표적인 이유로도 '성실함'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의 성실함도 믿

음직함 훌륭함 모범이 됨과 같은 반응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로서 '존경함'의 의미 속에는, 모범되고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고 올바르게 성실하다는 의미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이유로서 '존경함' 속에는, 믿음을 줌, 인생선배, 현명함, 성실한 행동과 같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부모나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로서 존경함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성실 정직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권혁호, 박영신과 김의철(2004)이 평사원과 상사로 구성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의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의 특정한 인간관계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서적인 교류를 신뢰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가족적인 관계의 확대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명언과 이영석(2000)은 기업조직에서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의 기반을 분석한 결과 13가지(직장생활에서의 배려, 육성적 배려, 개인생활 배려, 격 없음, 성실성, 권한 위임, 직무수행능력, 유대감 조성력, 의견존중, 방패막이, 책임감, 자기회생적 솔선수범, 소신력)를 추출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세 가지가 모두 상사의 능력과는 무관한 정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의 신뢰의식에서의 토착적인 특징들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3)은 기업경영에서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신뢰 및 리더십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분석한 바 있다. 이론적 체계와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정리한

결과는, 동아시아 사회와 서양 사회는 문화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따라서 신뢰 및 리더십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2001)은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현대화되고 가족구조에서도 변화가 있지만,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사람들간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 양육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가 헌신하고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는 관대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Kim & Choi, 1994), 이러한 사회화 과정이 가족과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강한 동조성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상에서 제기한 질문들, 즉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어떠한가?,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은 무엇인가? 에 대한 탐색이, 이 연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표상을 탐색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이고 문화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있다.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 및 신뢰의식의 심리적 기반과 관련하여, 각각의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결과들과 시사점을 이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사람, 문화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들(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정

태연, 2001; 한덕웅, 1994; 한덕웅, 강혜자, 2000)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주로 갖고 있는지를, 선행연구들과 표집대상을 달리 하여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부정적인 표상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정치, 경제, 사회, 사람, 문화의 5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에 대한 표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집단간에 한국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살펴볼 계획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의식의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의식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김명언, 이영석, 2000; 김의철, 박영신, 2004; 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c; Kim, 2001)은, 한국인의 토착심리가 문화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이중환, 2000)만이 아니라 사회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식에 있어서도 그러한 토착심리가 존재하는지, 만약 한국인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탐구해 나가고자 한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은 크게 학생과 성인으로 분류된다. 학생은 중학생과 대학생으로, 성인은 학생들의 부모와 교사로 분류된다. 중학생의 경우는 6개의 남 녀 중학교를 표집대상 학교로 하여 중학생과 그들의 부와 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남자 중학생 118명과 여자 중학생 103명이 성실하게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질문지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학생 221명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221명이 표집되었다. 한편 1개 대학교에서 34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212명(남 55명, 여 157명)이 확정되었다. 교사집단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었으며, 처음에 남녀 교사 각각 195명 211명이 응답하였으나, 그 중에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답지들을 제외하고, 총 406명(남 192명, 여 208명, 무응답 6명)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총 1,281명이 1차 표집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응답 자료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여, 각 집단의 연령분포 및 배경정보와 관련된 통계들을 구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 중에서 11세가 1명, 16세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그들의 부모 자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학생도 극단적인 일부 연령집단 즉 18세 10명, 30세 1명, 34세 1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사용 답지 중에서 직위를 확인하여 교감 7명과 교장 3명을 제외함으로써, 모두 평교사들로 분석대상을 구성하였다. 교직경력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인 15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선정된 대상 중에서 연령이 50세 이상인 28명을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교사 집단의 분석대상 수와 부모집단의 분석대상 수 및 연령분포가 유사하게 됨으로써, 성인집단이 이 두 변인의 면에서 동질적으

표 1. 분석대상

	학 생		성 인			계
	중	대	부	모	교사	
남	116	52	218	-	110	496
녀	102	148	-	218	97	565
무응답	-	-	-	-	3	3
계	218	200	218	218	210	1,064

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분석대상 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대상 수는 1,064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학생이 418명(중학생 218명, 대학생 200명), 성인이 646명(중학생의 부 218명, 중학생의 모 218명, 초중 고등학교 평교사 210명)이었다. 이러한 최종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중학생 14세(12~15세), 대학생 21세(19~29세), 아버지 44세(34~55세)였으며, 어머니 41세(33~56세), 교사 41세(32~49세) 이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표집대상에 따라 중학생용, 대학생용, 부모용, 교사용 질문지로 나뉘었다. 각 질문지의 배경정보 문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평소 한국에 대한 생각을 자유반응 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의 5영역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각 영역에 대한 지각을 종합함으로써 사회적 표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정

도를 4점 척도(1-매우 불신, 2-약간 불신, 3-약간 신뢰, 4-매우 신뢰)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국 사회에 대해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는 불신하는 이유를, '3' 또는 '4'에 응답한 경우는 신뢰하는 이유를 자유반응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셋째, 모든 질문지의 배경정보에 성별과 연령을 기록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교사용 질문지에서는 이 외에 교직 경력과 직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교직 경력의 경우는 각자 몇 년 동안 교직에 근무했는지를 기록하게 했으며, 직위는 네 개의 답지(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중에서 해당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시방법 및 분석절차

질문지는 2003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자료 회수는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되었다. 학생만이 아니라 성인집단으로 학생들의 부모 및 교사들을 표집하여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중학생과 대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담당 교사(교수)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질문지 실시에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중학생들에게는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를 모두 나누어 주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들이 부모용 질문지를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교사 표집대상은 각 학교 교무실로 방문하여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에 질문지에 응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추후에 질문지를 수합하였다. 성실한 응답을 부탁하기 위해, 모든 응답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들에 대해 먼저 응답의 성실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연령 및 직위(교사 경우)를 고려하여 가능한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함으로써, 최종 분석대상이 결정되었다. 질문지의 자유응답 자료는 그대로 모두 컴퓨터에 삽입되었다. 동질적인 반응들을 묶어 대표하는 항목 이름을 부여하고, 이러한 항목들 중에 질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재조직하여 범주 이름을 부여하였다. 항목과 범주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이 분야의 전문가 세 사람의 검토와 논의과정이 있었다. 모든 항목과 범주에 양적인 값을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분석틀(coding scheme)을 기초로 하여, 모든 문항들에 대한 질적 응답을 해당하는 양적인 값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양적인 값들을 토대로 빈도분석을 하여, 최종 분석표가 제작되었다.

결 과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표상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은, 네 가지 측면 즉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에 대한 표상을 추가하였다. 각각에 대해, 학생과 성인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정치에 대한 인식

한국 정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가 표 2이다. 반응 범주들은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별로 정리되었다. 전체 집단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 지각에 해당하는 반응이 94.5%로 대부분을 구성했다. 이와 같이 한국 정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학생과 성인 집단이 동일하였다.

부정적인 지각을 가장 대표하는 범주는 '불신'(39.3%)이었는데, 응답자의 약 40%가 한국 정치를 표상하면 불신감부터 느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신감이란, '믿을 수 없다' '한심하다' '혼란스럽다' '부정적이다' '불안하다' '불만족스럽다' '정직하지 못하다'와 같은 생각들을 포함하였다. '불신' 다음으로는 '정치인 자질 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 필요성'과 같은 범주들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한편 한국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잘 하고 있다'든가 '민주화되고 있다' '희망적이다'는 반응들이 있기는 했지만, 반응율이 너무 낮아 대표적인 범주로 명명되지를 못하고, 이러한 반응들을 모두 합하여 '긍정적 평가' 범주에 포함시켰다. 학생과 성인 집단 모두, 한국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하였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한국 경제에 대해 자유반응한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한 경우가 84.9%로 매우 높았다. 비록 한국 정치에 대한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정도가 약간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88.4%)과 성인(82.7%) 집단 모두 유사하게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핵심은 '불안'(30.4%) 이었다. 그 다음으로 '불경기'(20.2%)가 많이 지적되었고, 이 외에도 '구조적 문제' '불평등' '비관적'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한편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발전할 것이다'든가 '잘 되고 있다'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었는데, 15.1%에 불과했다.

표 2. 한국 정치에 대한 지각

긍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긍정적 평가	55 (5.2)	14 (6.5)	6 (3.1)	20 (4.9)	21 (4.9)	14 (6.8)	35 (5.5)
① 잘 하고 있다	23 (2.2)	9 (4.2)	1 (.5)	10 (2.4)	10 (2.3)	3 (1.4)	13 (2.0)
② 민주화되고 있다	18 (1.7)	3 (1.4)	1 (.5)	4 (1.0)	5 (1.2)	9 (4.3)	14 (2.2)
③ 희망적이다	14 (1.3)	2 (.9)	4 (2.1)	6 (1.5)	6 (1.4)	2 (1.0)	8 (1.3)
2. 긍정적 기타	3 (.3)	- (-)	- (-)	- (-)	1 (.2)	2 (1.0)	3 (.5)
계	58 (5.5)	14 (6.5)	6 (3.1)	20 (4.9)	22 (5.1)	16 (7.8)	38 (6.0)
부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불신	412 (39.3)	93 (43.1)	57 (29.2)	150 (36.5)	182 (42.2)	80 (38.6)	262 (41.1)
① 믿을 수 없다	141 (13.4)	18 (8.3)	23 (11.8)	41 (10.0)	68 (15.8)	32 (15.5)	100 (15.7)
② 한심하다	79 (7.5)	21 (9.7)	13 (6.7)	34 (8.3)	24 (5.6)	21 (10.1)	45 (7.1)
③ 혼란스럽다	57 (5.4)	22 (10.2)	2 (1.0)	24 (5.8)	20 (4.6)	13 (6.3)	33 (5.2)
④ 부정적이다	48 (4.6)	18 (8.3)	8 (4.1)	26 (6.3)	20 (4.6)	2 (1.0)	22 (3.4)
⑤ 불안하다	32 (3.1)	6 (2.8)	3 (1.5)	9 (2.2)	19 (4.4)	4 (1.9)	23 (3.6)
⑥ 불만족스럽다	31 (3.0)	5 (2.3)	4 (2.1)	9 (2.2)	20 (4.6)	2 (1.0)	22 (3.4)
⑦ 정직하지 못하다	24 (2.3)	3 (1.4)	4 (2.1)	7 (1.7)	11 (2.6)	6 (2.9)	17 (2.7)
2. 정치인 자질부족	154 (14.7)	26 (12.0)	33 (16.9)	59 (14.4)	71 (16.5)	24 (11.6)	95 (14.9)
① 정치인 자기 이익만 추구	59 (5.6)	13 (6.0)	14 (7.2)	27 (6.6)	27 (6.3)	5 (2.4)	32 (5.0)
②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님	39 (3.7)	6 (2.8)	4 (2.1)	10 (2.4)	21 (4.9)	8 (3.9)	29 (4.5)
③ 자질 부족	33 (3.1)	5 (2.3)	3 (1.5)	8 (1.9)	17 (3.9)	8 (3.9)	25 (3.9)
④ 권력 남용	23 (2.2)	2 (.9)	12 (6.2)	14 (3.4)	6 (1.4)	3 (1.4)	9 (1.4)
3. 부정부패	144 (13.7)	23 (10.6)	56 (28.7)	79 (19.2)	30 (7.0)	35 (16.9)	65 (10.2)
① 부정부패	115 (11.0)	17 (7.9)	51 (26.2)	68 (16.5)	23 (5.3)	24 (11.6)	47 (7.4)
② 비리가 많다	29 (2.8)	6 (2.8)	5 (2.6)	11 (2.7)	7 (1.6)	11 (5.3)	18 (2.8)
4. 파벌주의	96 (9.2)	19 (8.8)	17 (8.7)	36 (8.8)	40 (9.3)	20 (9.7)	60 (9.4)
① 싸움/상호비방	35 (3.3)	14 (6.5)	6 (3.1)	20 (4.9)	14 (3.2)	1 (.5)	15 (2.4)
② 파벌주의	26 (2.5)	- (-)	5 (2.6)	5 (1.2)	11 (2.6)	10 (4.8)	21 (3.3)
③ 대립/비협력적이다	20 (1.9)	4 (1.9)	2 (1.0)	6 (1.5)	13 (3.0)	1 (.5)	14 (2.2)
④ 연고주의	15 (1.4)	1 (.5)	4 (2.1)	5 (1.2)	2 (.5)	8 (3.9)	10 (1.6)
5. 후진성	65 (6.2)	13 (6.0)	10 (5.1)	23 (5.6)	24 (5.6)	18 (8.7)	42 (6.6)
① 수준이 낮다	38 (3.6)	8 (3.7)	7 (3.6)	15 (3.6)	11 (2.6)	12 (5.8)	23 (3.6)
② 강대국 영향받음	27 (2.6)	5 (2.3)	3 (1.5)	8 (1.9)	13 (3.0)	6 (2.9)	19 (3.0)
6. 변화 필요성	62 (5.9)	5 (2.3)	11 (5.6)	16 (3.9)	35 (8.1)	11 (5.3)	46 (7.2)
① 발전해야 한다	23 (2.2)	4 (1.9)	2 (1.0)	6 (1.5)	17 (3.9)	- (-)	17 (2.7)
② 변화가 필요하다	22 (2.1)	- (-)	6 (3.1)	6 (1.5)	9 (2.1)	7 (3.4)	16 (2.5)
③ 개선되어야 한다	17 (1.6)	1 (.5)	3 (1.5)	4 (1.0)	9 (2.1)	4 (1.9)	13 (2.0)
7. 기타	58 (5.5)	23 (10.6)	5 (2.6)	28 (6.8)	27 (6.3)	3 (1.4)	30 (4.7)
계	991 (94.5)	202 (93.5)	189 (96.9)	391 (95.1)	409 (94.9)	191 (92.2)	600 (94.0)
총계	1049 (100.0)	216 (100.0)	195 (100.0)	411 (100.0)	431 (100.0)	207 (100.0)	638 (100.0)

표 3. 한국 경제에 대한 지각

긍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긍정적 전망	139 (13.3)	26 (11.9)	19 (9.7)	45 (10.9)	65 (15.0)	29 (14.3)	94 (14.8)
①발전할 것이다	66 (6.3)	8 (3.7)	14 (7.2)	22 (5.3)	32 (7.4)	12 (5.9)	44 (6.9)
②잘 되고 있다	42 (4.0)	16 (7.3)	1 (.5)	17 (4.1)	13 (3.0)	12 (5.9)	25 (3.9)
③희망적이다	31 (3.0)	2 (.9)	4 (2.1)	6 (1.5)	20 (4.6)	5 (2.5)	25 (3.9)
2. 긍정적 기타	19 (1.8)	3 (1.4)	- (-)	3 (.7)	11 (2.5)	5 (2.5)	16 (2.5)
계	158 (15.1)	29 (13.3)	19 (9.7)	48 (11.6)	76 (17.5)	34 (16.8)	110 (17.3)
부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불안	319 (30.4)	72 (33.0)	65 (33.3)	137 (33.2)	119 (27.5)	63 (31.0)	182 (28.6)
①불안	153 (14.6)	35 (16.1)	23 (11.8)	58 (14.0)	69 (15.9)	26 (12.8)	95 (14.9)
②불안정함	90 (8.6)	28 (12.8)	18 (9.2)	46 (11.1)	28 (6.5)	16 (7.9)	44 (6.9)
③위태로움	37 (3.5)	3 (1.4)	14 (7.2)	17 (4.1)	8 (1.8)	12 (5.9)	20 (3.1)
④변동이 심함	22 (2.1)	4 (1.8)	10 (5.1)	14 (3.4)	4 (.9)	4 (2.0)	8 (1.3)
⑤정치 영향을 받음	17 (1.6)	2 (.9)	- (-)	2 (.5)	10 (2.3)	5 (2.5)	15 (2.4)
2. 불경기	212 (20.2)	61 (28.0)	30 (15.4)	91 (22.0)	104 (24.0)	17 (8.4)	121 (19.0)
①어렵다	130 (12.4)	26 (11.9)	19 (9.7)	45 (10.9)	76 (17.6)	9 (4.4)	85 (13.4)
②좋지 않다	55 (5.2)	29 (13.3)	8 (4.1)	37 (9.0)	17 (3.9)	1 (.5)	18 (2.8)
③불경기, 불황	27 (2.6)	6 (2.8)	3 (1.5)	9 (2.2)	11 (2.5)	7 (3.4)	18 (2.8)
3. 구조적 문제	121 (11.5)	13 (6.0)	33 (16.9)	46 (11.1)	41 (9.5)	34 (14.3)	75 (11.8)
①거품 경제	40 (3.8)	2 (.9)	7 (3.6)	9 (2.2)	13 (3.0)	18 (8.9)	31 (4.9)
②높은 외국의존도	38 (3.6)	2 (.9)	19 (9.7)	21 (5.1)	11 (2.5)	6 (3.0)	17 (2.7)
③구조적 문제를 가짐	15 (1.4)	- (-)	5 (2.6)	5 (1.2)	2 (.5)	8 (3.9)	10 (1.6)
④과소비	14 (1.3)	7 (3.2)	1 (.5)	8 (1.9)	5 (1.2)	1 (.5)	6 (.9)
⑤변화필요 (투자/기술개발/수출증대)	14 (1.3)	2 (.9)	1 (.5)	3 (.7)	10 (2.3)	1 (.5)	11 (1.7)
4. 불평등	100 (9.5)	8 (3.7)	30 (15.4)	38 (9.2)	41 (9.5)	21 (16.7)	62 (9.7)
①빈부격차가 심하다	66 (6.3)	6 (2.8)	21 (10.8)	27 (6.5)	28 (6.5)	11 (5.4)	39 (6.1)
②대기업/세벌 중심	23 (2.2)	- (-)	6 (3.1)	6 (1.5)	8 (1.8)	9 (4.4)	17 (2.7)
③불균형한 산업발전	11 (1.0)	2 (.9)	3 (1.5)	5 (1.2)	5 (1.2)	1 (.5)	6 (.9)
5. 비관적	88 (8.4)	23 (10.6)	9 (4.6)	32 (7.7)	40 (9.2)	16 (10.3)	56 (8.8)
①비관적	29 (2.8)	4 (1.8)	3 (1.5)	7 (1.7)	15 (3.5)	7 (3.4)	22 (3.5)
②점점 더 어려워진다	22 (2.1)	12 (5.5)	2 (1.0)	14 (3.4)	6 (1.4)	2 (1.0)	8 (1.3)
③두렵다/걱정된다	19 (1.8)	6 (2.8)	2 (1.0)	8 (1.9)	8 (1.8)	3 (1.5)	11 (1.7)
④불투명	18 (1.7)	1 (.5)	2 (1.0)	3 (.7)	11 (2.5)	4 (2.0)	15 (2.4)
6. 기타	51 (4.9)	12 (5.5)	9 (4.6)	21 (5.1)	12 (2.8)	18 (8.9)	30 (4.7)
계	891 (84.9)	189 (86.7)	176 (90.3)	365 (88.4)	357 (82.5)	169 (83.2)	526 (82.7)
총계	1049 (100.0)	218 (100.0)	195 (100.0)	413 (100.0)	433 (100.0)	203 (100.0)	636 (100.0)

세대집단별로 보았을 때,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불안'(학생-33.2%, 성인-28.6%)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불경기' '구조적 문제'의 순서로 동일한 반응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과 부모집단은 '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불경기'를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였으나, 대학생은 '불안' 다음으로 '구조적 문제' '불경기'의 순서를 보였다. 한편 성인에서 교사집단은 '불안' 다음으로 '불평등' '구조적 문제'의 순서로 반응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교사와 대학생 집단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단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학생과 성인 세대집단별로도 전반적 반응경향이 일치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집단별 반응 경향을 볼 때,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긍정 21.8%, 부정 78.2%). 부정적 지각에서 가장 대표적인 범주는 '부정부패'로서, 전체 응답자의 20% 이상이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부정부패를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급격한 변화' '불안'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가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발전가능성' '살기 좋음' '정'이 부각되었다.

세대별로 보면 학생과 성인 모두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지각을 현저하게 많이 하였다. 하위집단별로는, 학생 경우에 중학생(25.3%)이 대학생(22.6%)보다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음/ 생각없음'과 같이 막연히 그저 그렇다고 생각한다는가 특별히 나쁘지는 않다는 인식이 많은 사실을 고려하면, 중학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지각은 중학생보다 대학생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대학생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핵심은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23.4%)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였다. 반면에 중학생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23.9%)로 인한 복잡함과 불안정에 대한 인식이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인식이었다.

성인집단 내에서는 부모보다 교사가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사가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높음으로써, 네 하위집단 중에서 가장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부정부패'로 대표되었다. 부정부패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는 인식은 부모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표 5에 한국 문화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표 2~4 참고)에 대한 분석과 달리, 긍정적인 지각(54.3%)이 부정적인 지각(45.7%)보다 약간 더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는 비록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각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각의 가장 대표되는 내용은 '자부심'(25.0%)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자부심을 구성하는 표상들은 '우수함' '긍정적' '가치있음'으로 대표되었다. '자부심' 외

표 4.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

긍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발전 가능성	65 (6.3)	8 (3.8)	13 (6.9)	21 (5.2)	33 (7.8)	11 (5.4)	44 (7.0)
①발전가능성	34 (3.3)	6 (2.8)	4 (2.1)	10 (2.5)	19 (4.5)	5 (2.4)	24 (3.8)
②단결	11 (1.1)	1 (.5)	3 (1.6)	4 (1.0)	6 (1.4)	1 (.5)	7 (1.1)
③근면 성실	10 (1.0)	- (-)	3 (1.6)	3 (.7)	5 (1.2)	2 (1.0)	7 (1.1)
④신뢰로움	10 (1.0)	1 (.5)	3 (1.6)	4 (1.0)	3 (.7)	3 (1.5)	6 (1.0)
2. 살기 좋음	49 (4.8)	15 (7.0)	9 (4.8)	24 (6.0)	22 (5.2)	3 (1.5)	25 (4.0)
①살기 좋음	36 (3.5)	12 (5.6)	5 (2.7)	17 (4.2)	17 (4.0)	2 (1.0)	19 (3.0)
②긍정적/괜찮음	13 (1.3)	3 (1.4)	4 (2.1)	7 (1.7)	5 (1.2)	1 (.5)	6 (1.0)
3. 정	34 (3.3)	6 (2.8)	5 (2.7)	11 (2.7)	9 (2.1)	14 (6.8)	23 (3.7)
①정	19 (1.9)	4 (1.9)	2 (1.1)	6 (1.5)	6 (1.4)	7 (3.4)	13 (2.1)
②따뜻함/인간적	15 (1.5)	2 (.9)	3 (1.6)	5 (1.2)	3 (.7)	7 (3.4)	10 (1.6)
4. 긍정적인 기타	76 (7.4)	25 (11.7)	10 (5.3)	35 (8.7)	34 (8.1)	7 (3.4)	41 (6.5)
①평범함/보통임	21 (2.0)	7 (3.3)	4 (2.1)	11 (2.7)	9 (2.1)	1 (.5)	10 (1.6)
②모르겠음/생각 없음	19 (1.9)	11 (5.2)	4 (2.1)	15 (3.7)	4 (1.0)	- (-)	4 (.6)
③기타	36 (3.5)	7 (3.3)	2 (1.1)	9 (2.2)	21 (5.0)	6 (2.9)	27 (4.3)
계	224 (21.8)	54 (25.3)	37 (19.7)	91 (22.6)	98 (23.2)	35 (17.1)	133 (21.2)
부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부정부패	233 (22.7)	42 (19.7)	44 (23.4)	86 (21.4)	87 (20.7)	60 (29.3)	147 (23.5)
①부정 부패	79 (7.7)	10 (4.7)	18 (9.6)	28 (7.0)	19 (4.5)	32 (15.6)	51 (8.1)
②부정적임	65 (6.3)	24 (11.3)	9 (4.8)	33 (8.2)	27 (6.4)	5 (2.4)	32 (5.1)
③불신	41 (4.0)	4 (1.9)	9 (4.8)	13 (3.2)	21 (5.0)	7 (3.4)	28 (4.5)
④원칙 부재	29 (2.8)	2 (.9)	4 (2.1)	6 (1.5)	16 (3.8)	7 (3.4)	23 (3.7)
⑤정의 부재	19 (1.9)	2 (.9)	4 (2.1)	6 (1.5)	4 (1.0)	9 (4.4)	13 (2.1)
2. 급격한 변화	169 (16.5)	51 (23.9)	24 (12.8)	75 (18.7)	58 (13.8)	36 (17.6)	94 (15.0)
①복잡	49 (4.8)	19 (8.9)	5 (2.7)	24 (6.0)	16 (3.8)	9 (4.4)	25 (4.0)
②급격한 변화	35 (3.4)	14 (6.6)	2 (1.1)	16 (4.0)	13 (3.1)	6 (2.9)	19 (3.0)
③불안정	31 (3.0)	8 (3.8)	6 (3.2)	14 (3.5)	14 (3.3)	3 (1.5)	17 (2.7)
④혼란	30 (2.9)	3 (1.4)	10 (5.3)	13 (3.2)	8 (1.9)	9 (4.4)	17 (2.7)
⑤무질서	24 (2.3)	7 (3.3)	1 (.5)	8 (2.0)	7 (1.7)	9 (4.4)	16 (2.6)
3. 불안	102 (9.9)	26 (12.2)	16 (8.5)	42 (10.5)	45 (10.7)	15 (7.3)	60 (9.6)
①불안	66 (6.4)	22 (10.3)	10 (5.3)	32 (8.0)	31 (7.4)	3 (1.5)	34 (5.4)
②조급성	25 (2.4)	2 (.9)	6 (3.2)	8 (2.0)	7 (1.7)	10 (4.9)	17 (2.7)
③안전불감증	11 (1.1)	2 (.9)	- (-)	2 (.5)	7 (1.7)	2 (1.0)	9 (1.4)
4. 빈부격차	67 (6.5)	10 (4.7)	11 (5.9)	21 (5.2)	32 (7.6)	14 (6.8)	46 (7.3)
①빈부격차	40 (3.9)	7 (3.3)	4 (2.1)	11 (2.7)	22 (5.2)	7 (3.4)	29 (4.6)
②불평등	27 (2.6)	3 (1.4)	7 (3.7)	10 (2.5)	10 (2.4)	7 (3.4)	17 (2.7)
5. 이기주의	60 (5.8)	9 (4.2)	12 (6.4)	21 (5.2)	30 (7.1)	9 (4.4)	39 (6.2)
①이기주의	36 (3.5)	7 (3.3)	6 (3.2)	13 (3.2)	17 (4.0)	6 (2.9)	23 (3.7)
②개인주의	13 (1.3)	- (-)	3 (1.6)	3 (.7)	8 (1.9)	2 (1.0)	10 (1.6)
③착취함/착박함	11 (1.1)	2 (.9)	3 (1.6)	5 (1.2)	5 (1.2)	1 (.5)	6 (1.0)
6. 보수적	51 (5.0)	3 (1.4)	16 (8.5)	19 (4.7)	17 (4.0)	15 (7.3)	32 (5.1)
①보수적	21 (2.0)	- (-)	7 (3.7)	7 (1.7)	10 (2.4)	4 (2.0)	14 (2.2)
②가부장적/권위적	16 (1.6)	- (-)	3 (1.6)	3 (.7)	4 (1.0)	9 (4.4)	13 (2.1)
③고정관념·편견	14 (1.4)	3 (1.4)	6 (3.2)	9 (2.2)	3 (.7)	2 (1.0)	5 (.8)
7. 연교주의	48 (4.7)	7 (3.3)	12 (6.4)	19 (4.7)	18 (4.3)	11 (5.4)	29 (4.6)
①학연	21 (2.0)	6 (2.8)	5 (2.7)	11 (2.7)	8 (1.9)	2 (1.0)	10 (1.6)
②인맥	14 (1.4)	1 (.5)	5 (2.7)	6 (1.5)	3 (.7)	5 (2.4)	8 (1.3)
③지연	13 (1.3)	- (-)	2 (1.1)	2 (.5)	7 (1.7)	4 (2.0)	11 (1.8)
8. 부정적 기타	73 (7.1)	11 (5.2)	16 (8.5)	27 (6.7)	36 (8.6)	10 (4.9)	46 (7.3)
계	803 (78.2)	159 (74.6)	151 (80.3)	310 (77.3)	323 (76.7)	170 (82.9)	493 (78.8)
총계	1027 (100.0)	213 (100.0)	188 (100.0)	401 (100.0)	421 (100.0)	205 (100.0)	626 (100.0)

표 5. 한국 문화에 대한 지각

긍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자부심	261 (25.0)	88 (40.7)	27 (14.1)	115 (28.2)	120 (28.0)	26 (12.6)	146 (23.0)
①우수함	83 (8.0)	32 (14.8)	8 (4.2)	40 (9.8)	35 (8.2)	8 (3.9)	43 (6.8)
②자부심	77 (7.4)	24 (11.1)	11 (5.7)	35 (8.6)	33 (7.7)	9 (4.4)	42 (6.6)
③긍정적	58 (5.6)	21 (9.7)	4 (2.1)	25 (6.1)	29 (6.8)	4 (1.9)	33 (5.2)
④가치 있음	43 (4.1)	11 (5.1)	4 (2.1)	15 (3.7)	23 (5.4)	5 (2.4)	28 (4.4)
2. 오랜 전통	94 (9.0)	24 (11.1)	10 (5.2)	34 (8.3)	39 (9.1)	21 (10.2)	60 (9.4)
①오랜 전통	48 (4.6)	9 (4.2)	2 (1.0)	11 (2.7)	24 (5.6)	13 (6.3)	37 (5.8)
②오랜 역사	30 (2.9)	13 (6.0)	1 (.5)	14 (3.4)	12 (2.8)	4 (1.9)	16 (2.5)
③예의/경로사상	16 (1.5)	2 (.9)	7 (3.6)	9 (2.2)	3 (.7)	4 (1.9)	7 (1.1)
3. 아름다움	79 (7.6)	18 (8.3)	11 (5.7)	29 (7.1)	24 (5.6)	26 (12.6)	50 (7.9)
①아름다움	44 (4.2)	15 (6.9)	3 (1.6)	18 (4.4)	20 (4.7)	6 (2.9)	26 (4.1)
②은은함	22 (2.1)	3 (1.4)	5 (2.6)	8 (2.0)	3 (.7)	11 (5.3)	14 (2.2)
③정 문화	13 (1.2)	- (-)	3 (1.6)	3 (.7)	1 (.2)	9 (4.4)	10 (1.6)
4. 독창적임	53 (5.1)	5 (2.3)	18 (9.4)	23 (5.6)	9 (2.1)	21 (10.2)	30 (4.7)
①독창적임	33 (3.2)	3 (1.4)	13 (6.8)	16 (3.9)	6 (1.4)	11 (5.3)	17 (2.7)
②다양함	20 (1.9)	2 (.9)	5 (2.6)	7 (1.7)	3 (.7)	10 (4.9)	13 (2.0)
5. 긍정적 기타	79 (7.6)	15 (6.9)	13 (6.8)	28 (6.9)	31 (7.2)	20 (9.7)	51 (8.0)
①보통임/모르겠음	20 (1.9)	7 (3.2)	- (-)	7 (1.7)	12 (2.8)	1 (.5)	13 (2.0)
②기타	59 (5.7)	8 (3.7)	13 (6.8)	21 (5.1)	19 (4.4)	19 (9.2)	38 (6.0)
계	566 (54.3)	150 (69.3)	79 (41.2)	229 (56.1)	223 (52.0)	114 (55.3)	337 (53.0)

부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주체성 상실	159 (15.2)	17 (7.9)	35 (18.2)	52 (12.7)	75 (17.5)	32 (15.5)	107 (16.9)
①보존 안됨	52 (5.0)	6 (2.8)	10 (5.2)	16 (3.9)	28 (6.5)	8 (3.9)	36 (5.7)
②주체성 상실	44 (4.2)	5 (2.3)	16 (8.3)	21 (5.1)	12 (2.8)	11 (5.3)	23 (3.6)
③보존, 개발 필요	34 (3.3)	1 (.5)	2 (1.0)	3 (.7)	24 (5.6)	7 (3.4)	31 (4.9)
④사라짐/잊혀짐	29 (2.8)	5 (2.3)	7 (3.6)	12 (2.9)	11 (2.6)	6 (2.9)	17 (2.7)
2. 문화사대주의	97 (9.3)	11 (5.1)	37 (19.3)	48 (11.8)	27 (6.3)	22 (10.7)	49 (7.7)
①외래문화 무분별 수용	65 (6.2)	5 (2.3)	30 (15.6)	35 (8.6)	15 (3.5)	15 (7.3)	30 (4.7)
②외래문화 모방	19 (1.8)	6 (2.8)	4 (2.1)	10 (2.5)	8 (1.9)	1 (.5)	9 (1.4)
③외래-전통문화 혼합	13 (1.2)	- (-)	3 (1.6)	3 (.7)	4 (.9)	6 (2.9)	10 (1.6)
3. 자긍심 부족	88 (8.4)	17 (7.9)	13 (6.8)	30 (7.4)	42 (9.8)	16 (7.8)	58 (9.1)
①수준 낮음	34 (3.3)	6 (2.8)	5 (2.6)	11 (2.7)	15 (3.5)	8 (3.9)	23 (3.6)
②문화이해 부족	30 (2.9)	5 (2.3)	5 (2.6)	10 (2.5)	15 (3.5)	5 (2.4)	20 (3.1)
③자긍심 부족	24 (2.3)	6 (2.8)	3 (1.6)	9 (2.2)	12 (2.8)	3 (1.5)	15 (2.4)
4. 보수적	36 (3.5)	3 (1.4)	8 (4.2)	11 (2.7)	15 (3.5)	10 (4.9)	25 (3.9)
①보수적/관습적	26 (2.5)	2 (.9)	7 (3.6)	9 (2.2)	11 (2.6)	6 (2.9)	17 (2.7)
②유교적	10 (1.0)	1 (.5)	1 (.5)	2 (.5)	4 (.9)	4 (1.9)	8 (1.3)
5. 부정적 기타	97 (9.3)	18 (8.3)	20 (10.4)	38 (9.3)	47 (11.0)	12 (5.8)	59 (9.3)
계	477 (45.7)	66 (30.6)	113 (58.9)	179 (43.9)	206 (48.0)	92 (44.7)	298 (46.9)
총계	1043 (100.0)	216 (100.0)	192 (100.0)	408 (100.0)	429 (100.0)	206 (100.0)	635 (100.0)

에도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적임'이,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각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중에 가장 대표되는 범주는 '주체성 상실'(15.2%)로서, 우리 문화가 보존이 안 되고 사라져가며 잊혀지는 면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체성 상실' 다음으로 '문화 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 우리 문화의 부정적인 면으로 부각되었다.

세대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학생(28.3%)이든 성인(23.0%)이든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하위집단별로 보면, 특히 중학생(40.7%)이 다른 세 집단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한국 문화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에 있어서도, 학생과 성인 모두 '주체성 상실'의 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단 하위집단별로 볼 때, 중학생과 부모 및 교사는 모두 '주체성 상실'을 우리 문화의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문화 사대주의'를 지적하였는데, 대학생은 오히려 '문화 사대주의'를 지적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성인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 의식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

표 6은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집단의 반응을 볼 때, 표 4에 제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보다 부정적인 지각(긍정 -41.4%, 부정 -58.6%)을 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지각의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 패턴은 학생이든 성인이든 유사하였다. 부정적

지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표상은,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19.8%)이고 '도덕성이 결여'(13.9%)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이외에도 '조급성'과 '체면/권력 지향'이 한국 사람의 부정적인 면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한국 사람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인정'(17.9%)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외에 '착함' '단결력' '근면'이 포함되었다.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중학생과 대학생 및 부모집단은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서 '이기적'임을, 그 다음으로 '도덕성 결여'를 지적하였다. 반면에 교사집단은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 결여'(14.4%)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표 4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부정부패'(29.3%)를 가장 많이 지적한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사들이 학생보다 그리고 동일한 성인집단 내에서 학부모들보다, 한국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였다. 한편, 네 집단 모두, 한국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으로서 '인정'을 가장 많이 지각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이유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사회를 '약간 신뢰'한다거나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의 이유를 직접 기록하게 한 것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이다. 한국 사회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30.2%)이기 때문이었다. 즉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보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신뢰한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 '살기 좋은 사회'

표 6. 한국 사람에 대한 지각

긍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인정	188 (17.9)	42 (19.4)	42 (21.6)	84 (20.4)	60 (13.8)	44 (21.2)	104 (16.2)
①경	100 (9.5)	12 (5.5)	31 (16.0)	43 (10.5)	29 (6.7)	28 (13.5)	57 (8.9)
②인정	59 (5.6)	17 (7.8)	6 (3.1)	23 (5.6)	23 (5.3)	13 (6.3)	36 (5.6)
③친절함/자상함	29 (2.8)	13 (6.0)	5 (2.6)	18 (4.4)	8 (1.8)	3 (1.4)	11 (1.7)
2. 착함	77 (7.3)	13 (6.0)	21 (10.8)	34 (8.3)	31 (7.1)	12 (5.8)	43 (6.7)
①착함	43 (4.1)	6 (2.8)	12 (6.2)	18 (4.4)	15 (3.5)	10 (4.8)	25 (3.9)
②좋은	34 (3.2)	7 (3.2)	9 (4.6)	16 (3.9)	16 (3.7)	2 (1.0)	18 (2.8)
3. 단결력	56 (5.3)	10 (4.6)	8 (4.1)	18 (4.4)	32 (7.4)	6 (2.9)	38 (5.9)
4. 근면	50 (4.7)	3 (1.4)	5 (2.6)	8 (1.9)	17 (3.9)	25 (12.0)	42 (6.5)
①근면	33 (3.1)	2 (.9)	3 (1.5)	5 (1.2)	13 (3.0)	15 (7.2)	28 (4.4)
②노력	17 (1.6)	1 (.5)	2 (1.0)	3 (.7)	4 (.9)	10 (4.8)	14 (2.2)
5. 긍정적 기타	65 (6.2)	17 (7.8)	10 (5.2)	27 (6.6)	24 (5.5)	14 (6.7)	38 (5.9)
①똑똑함	11 (1.0)	- (-)	1 (.5)	1 (.2)	4 (.9)	6 (2.9)	10 (1.6)
②기타	54 (5.1)	17 (7.8)	9 (4.6)	26 (6.3)	20 (4.6)	8 (3.8)	28 (4.4)
계	436 (41.4)	85 (39.2)	86 (44.3)	171 (41.6)	164 (37.7)	101 (48.6)	265 (41.2)

부정적 지각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이기적	208 (19.8)	52 (24.0)	28 (14.4)	80 (19.5)	106 (24.4)	22 (10.6)	128 (19.9)
①이기적	141 (13.4)	34 (15.7)	18 (9.3)	52 (12.7)	72 (16.6)	17 (8.2)	89 (13.9)
②개인주의적	26 (2.5)	1 (.5)	4 (2.1)	5 (1.2)	19 (4.4)	2 (1.0)	21 (3.3)
③인색함	24 (2.3)	15 (6.9)	3 (1.5)	18 (4.4)	6 (1.4)	- (-)	6 (.9)
④협동 안 됨	17 (1.6)	2 (.9)	3 (1.5)	5 (1.2)	9 (2.1)	3 (1.4)	12 (1.9)
2. 도덕성 결여	123 (13.9)	44 (20.3)	27 (13.9)	71 (17.3)	45 (10.4)	30 (14.4)	75 (11.7)
①불친절	47 (4.5)	32 (14.7)	3 (1.5)	35 (8.5)	10 (2.3)	2 (1.0)	12 (1.9)
②인정에 좌우됨	42 (4.0)	1 (.5)	9 (4.6)	10 (2.4)	17 (3.9)	15 (7.2)	32 (5.0)
③도덕성 결여	34 (3.2)	9 (4.1)	4 (2.1)	13 (3.2)	14 (3.2)	7 (3.4)	21 (3.3)
④배타적	23 (2.2)	2 (.9)	11 (5.7)	13 (3.2)	4 (.9)	6 (2.9)	10 (1.6)
3. 조급성	97 (9.2)	15 (6.9)	23 (11.9)	38 (9.2)	35 (8.1)	24 (11.5)	59 (9.2)
①급함	54 (5.1)	11 (5.1)	10 (5.2)	21 (5.1)	18 (4.1)	15 (7.2)	33 (5.1)
②빨리빨리/대충대충	28 (2.7)	- (-)	9 (4.6)	9 (2.2)	12 (2.8)	7 (3.4)	19 (3.0)
③여유 없음	15 (1.4)	4 (1.8)	4 (2.1)	8 (1.9)	5 (1.2)	2 (1.0)	7 (1.1)
4. 체면/권력지향	69 (6.6)	7 (3.2)	12 (6.2)	19 (4.6)	33 (7.6)	17 (8.2)	50 (7.8)
①체면중시/외형중시	37 (3.5)	3 (1.4)	8 (4.1)	11 (2.7)	14 (3.2)	12 (5.8)	26 (4.0)
②물질·권력지향	32 (3.0)	4 (1.8)	4 (2.1)	8 (1.9)	19 (4.4)	5 (2.4)	24 (3.7)
5. 부정적 기타	97 (9.2)	14 (6.5)	18 (9.3)	32 (7.8)	51 (11.8)	14 (6.7)	65 (10.1)
계	617 (58.6)	132 (60.8)	108 (55.7)	240 (58.4)	270 (62.2)	107 (51.4)	377 (58.7)
총계	1053 (100.0)	217 (100.0)	194 (100.0)	411 (100.0)	434 (100.0)	208 (100.0)	642 (100.0)

표 7.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의 이유

신뢰의 이유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우리나라	146 (30.2)	59 (53.2)	30 (38.5)	89 (47.1)	52 (22.8)	5 (7.5)	57 (19.3)
①우리나라니까	40 (8.3)	26 (23.4)	4 (5.1)	30 (15.9)	9 (3.9)	1 (1.5)	10 (3.4)
②조국이니까	38 (7.9)	14 (12.6)	7 (9.0)	21 (11.1)	14 (6.1)	3 (4.5)	17 (5.8)
③한국 사람이니까	34 (7.0)	10 (9.0)	6 (7.7)	16 (8.5)	17 (7.5)	1 (1.5)	18 (6.1)
④내가 사는 나라이니까	19 (3.9)	4 (3.6)	9 (11.5)	13 (6.9)	6 (2.6)	- (-)	6 (2.0)
⑥애국심 때문	15 (3.1)	5 (4.5)	4 (5.1)	9 (4.8)	6 (2.6)	- (-)	6 (2.0)
2. 가능성	69 (14.3)	3 (2.7)	15 (19.2)	18 (9.5)	31 (13.6)	20 (29.9)	51 (17.3)
①가능성이 있어서	28 (5.8)	2 (1.8)	6 (7.7)	8 (4.2)	11 (4.8)	9 (13.4)	20 (6.8)
②위기 극복 능력이 있기 때문	19 (3.9)	- (-)	4 (5.1)	4 (2.1)	12 (5.3)	3 (4.5)	15 (5.1)
③잠재력이 있어서	14 (2.9)	1 (.9)	4 (5.1)	5 (2.6)	4 (1.8)	5 (7.5)	9 (3.1)
④교육열이 높아서	8 (1.7)	- (-)	1 (1.3)	1 (.5)	4 (1.8)	3 (4.5)	7 (2.4)
3. 한국인의 인간미	68 (14.0)	17 (15.3)	8 (10.3)	25 (13.2)	32 (14.0)	11 (16.4)	43 (14.6)
①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28 (5.8)	2 (1.8)	6 (7.7)	8 (4.2)	13 (5.7)	7 (10.4)	20 (6.8)
②정이 있어서	17 (3.5)	7 (6.3)	1 (1.3)	8 (4.2)	7 (3.1)	2 (3.0)	9 (3.1)
③전통/예절이 남아있어서	13 (2.7)	6 (5.4)	1 (1.3)	7 (3.7)	5 (2.2)	1 (1.5)	6 (2.0)
④우수한 민족	10 (2.1)	2 (1.8)	- (-)	2 (1.1)	7 (3.1)	1 (1.5)	8 (2.7)
4. 한국인의 노력	56 (11.6)	4 (3.6)	5 (6.4)	9 (4.8)	34 (14.9)	13 (19.4)	47 (15.9)
①단결/협동을 잘 해서	23 (4.8)	3 (2.7)	2 (2.6)	5 (2.6)	16 (7.0)	2 (3.0)	18 (6.1)
②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22 (4.5)	1 (.9)	3 (3.8)	4 (2.1)	13 (5.7)	5 (7.5)	18 (6.1)
③근면/성실해서	11 (2.3)	- (-)	- (-)	- (-)	5 (2.2)	6 (9.0)	11 (3.7)
5. 살기 좋은 사회	54 (11.2)	11 (9.9)	10 (12.8)	21 (11.1)	24 (10.5)	9 (13.4)	33 (11.2)
①믿을 수 있는 사회이므로	26 (5.4)	7 (6.3)	6 (7.7)	13 (6.9)	8 (3.5)	5 (7.5)	13 (4.4)
②살기 좋다	19 (3.9)	2 (1.8)	2 (2.6)	4 (2.1)	13 (5.7)	2 (3.0)	15 (5.1)
③민주주의 국가여서	9 (1.9)	2 (1.8)	2 (2.6)	4 (2.1)	3 (1.3)	2 (3.0)	5 (1.7)
6. 긍정적 변화	45 (9.3)	4 (3.6)	3 (3.8)	7 (3.7)	31 (13.6)	(10.4)	38 (12.9)
①좋아지고 있어서	31 (6.4)	3 (2.7)	2 (2.6)	5 (2.6)	20 (8.8)	67 (9.0)	26 (8.8)
②정권 교체가 되어서	14 (2.9)	1 (.9)	1 (1.3)	2 (1.1)	11 (4.8)	1 (1.5)	12 (4.1)
7. 기타	46 (9.5)	13 (11.7)	7 (9.0)	20 (10.6)	24 (10.5)	2 (3.0)	26 (8.8)
계	484 (100.0)	111 (100.0)	78 (100.0)	189 (100.0)	228 (100.0)	67 (100.0)	295 (100.0)

표 8.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의 이유

불신의 이유	전체	학생			성인		
		중학생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정치인 불신	164 (30.3)	27 (26.0)	30 (29.1)	57 (27.5)	65 (32.7)	42 (29.8)	107 (31.5)
①정치적 불신 때문	46 (8.4)	9 (8.7)	8 (7.8)	17 (8.2)	18 (9.0)	11 (7.8)	29 (8.5)
②정치인의 자질 부족 때문	37 (6.8)	3 (2.9)	6 (5.8)	9 (4.3)	16 (8.0)	12 (8.5)	28 (8.2)
③정치인의 부패/비리 때문	33 (6.0)	6 (5.8)	10 (9.7)	16 (7.7)	9 (4.5)	8 (5.7)	17 (5.0)
④정책의 비밀관성 때문	24 (4.4)	1 (1.0)	3 (2.9)	4 (1.9)	11 (5.5)	9 (6.4)	20 (5.9)
⑤정치를 못하기 때문	24 (4.4)	8 (7.7)	3 (2.9)	11 (5.3)	11 (5.5)	2 (1.4)	13 (3.8)
2. 부정부패/비리	124 (22.7)	9 (8.7)	21 (20.4)	30 (14.5)	39 (19.6)	55 (39.0)	94 (27.6)
①부정부패	64 (11.7)	7 (6.7)	16 (15.5)	23 (11.1)	21 (10.6)	20 (14.2)	41 (12.1)
②도덕성 결여 때문	24 (4.4)	- (-)	1 (1.0)	1 (. 5)	10 (5.0)	13 (9.2)	23 (6.8)
③원칙의 부재 때문	23 (4.2)	2 (1.9)	- (-)	2 (1.0)	5 (2.5)	16 (11.3)	21 (6.2)
④연고주의	13 (2.4)	- (-)	4 (3.9)	4 (1.9)	3 (1.5)	6 (4.3)	9 (2.6)
3. 공공기관 불신	87 (15.9)	25 (24.0)	26 (25.2)	51 (24.6)	27 (13.6)	9 (6.4)	36 (10.6)
①사회를 믿을 수 없기 때문	33 (6.0)	6 (5.8)	8 (7.8)	14 (6.8)	16 (8.0)	3 (2.1)	19 (5.6)
②사회 불안 때문	20 (3.7)	6 (5.8)	7 (6.8)	13 (6.3)	4 (2.0)	3 (2.1)	7 (2.1)
③경험을 통해 생긴 불신 때문	19 (3.5)	11 (10.6)	4 (3.9)	15 (7.2)	3 (1.5)	1 (. 7)	4 (1.2)
④공공기관/언론을 불신	15 (2.7)	2 (1.9)	7 (6.8)	9 (4.3)	4 (2.0)	2 (1.4)	6 (1.8)
4. 경제적 불안	70 (12.8)	18 (17.3)	6 (5.8)	24 (11.6)	36 (18.1)	10 (7.1)	46 (13.5)
①경제적 불안 때문	32 (5.9)	6 (5.8)	5 (4.9)	11 (5.3)	16 (8.0)	5 (3.5)	21 (6.2)
②불평등하기 때문	17 (3.1)	7 (6.7)	1 (1.0)	8 (3.9)	5 (2.5)	4 (2.8)	9 (2.6)
③경제적 어려움 때문	12 (2.2)	5 (4.8)	- (-)	5 (2.4)	6 (3.0)	1 (. 7)	7 (2.1)
④빈부격차가 심해서	9 (1.6)	- (-)	- (-)	- (-)	9 (4.5)	- (-)	9 (2.6)
5. 이기주의	43 (7.9)	6 (5.8)	7 (6.8)	13 (6.3)	19 (9.5)	11 (7.8)	30 (8.8)
①이기주의/개인주의 때문	27 (4.9)	5 (4.8)	4 (3.9)	9 (4.3)	16 (8.0)	2 (1.4)	18 (5.3)
②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	16 (2.9)	1 (1.0)	3 (2.9)	4 (1.9)	3 (1.5)	9 (6.4)	12 (3.5)
6. 강대국의 영향	18 (3.3)	7 (6.7)	6 (5.8)	13 (6.3)	3 (1.5)	2 (1.4)	5 (1.5)
①강대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	10 (1.8)	2 (1.9)	4 (3.9)	6 (2.9)	3 (1.5)	1 (. 7)	4 (1.2)
②미국에 의존하기 때문	8 (1.5)	5 (4.8)	2 (1.9)	7 (3.4)	- (-)	1 (. 7)	1 (. 3)
7. 기타	41 (7.5)	12 (11.5)	7 (6.8)	19 (9.2)	10 (5.0)	12 (8.5)	22 (6.5)
계	547 (100.0)	104 (100.0)	103 (100.0)	207 (100.0)	199 (100.0)	141 (100.0)	340 (100.0)

‘긍정적 변화’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모두 10% 내외의 반응율을 보였다.

세대별로 보면, 학생(47.1%)과 성인(19.3%) 모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학생이 성인보다 훨씬 한국 사회에 대해 이러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많이 하였다. 그런데 하위집단별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및 부모는 모두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반면에, 교사는 ‘가능성’(29.9%) ‘한국인의 노력’ ‘한국인의 인간미’ ‘살기 좋은 사회’ ‘긍정적 변화’ ‘우리나라’(7.5%)로서 ‘우리나라’라는 반응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한국 사회 불신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인 불신’(30.3%)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 비리’가 20% 이상, ‘공공기간 불신’ 및 경제적 불안이 각각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고, 이외에도 ‘이기주의’ ‘강대국의 영향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났다. ‘정치인 불신’의 경우는 주로 정치인의 자질 부족이나 부정부패의 행동과 정책의 비일관성 및 정치적 무능 등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 비리’ 범주는 도덕성의 결여라든가 원칙의 부재, 그리고 연고주의가 주된 의미들로 포함되었다. 이외에 각 범주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표상들은 표 8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학생은 ‘정치인 불신’(27.5%) ‘공공기간 불신’ ‘부정부패/비리’의 순서로, 성인은 ‘정치인 불신’(31.5%) ‘부정부패/ 비리’ ‘경제적 불안’의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세대별로 불신의 이유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불신’이 한국 사회를 불신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표상인 점에서는 학생이나 성인 모두 일치했다. 하위집단별로 보았을 때 다른 세 집단은 모두

‘정치적 불신’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교사는 ‘부정부패/ 비리’(39.0%)를 한국 사회 불신의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인 불신’을 지적하였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2000년대 초엽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표상하고 있으며, 신뢰의식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기반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사람, 문화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의 신뢰의식 저변에 있는 토착심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학생 및 성인 세대집단별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전국에서 무선 표집된 것은 아니므로, 연구 결과를 한국 사람 전체의 지각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학생과 성인이라는 세대집단을 고려하고, 학생 중에서는 10대의 중학생과 20대의 대학생, 성인 중에서는 이들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집단을 표집하여, 집단별 차이 유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볼 때 예컨대 노인집단이 표집되지 않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지위별 하위집단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정교한 표집설계에 토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질적인 자료들에 대한 분석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앞으로 양적인 척도화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사회

인식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인을 구성하고, 그 변인들의 신뢰도와 같은 양호도 계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로 측정된 한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일정 간격으로 정기적인 측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의 한국에 대한 표상과 관련된 토착 심리를 누적적으로 기록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한 한국 사회 변동을 한국 사람의 의식을 통해 파악하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질적이고 양적인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확인된 몇 가지 사실들은, 후속연구를 기획하는데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이 연구에서 현저하게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몇 가지 논의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효능적 신념의 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핵심에 특히 정치에 대한 극단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정치에 대한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했을 때, 팽배해 있는 '불신'(39.3%) 의식을 확인(표 2 참고)할 수 있었다. '믿을 수 없다' '한심하다' '혼란스럽다' '부정적이다' '불안하다' '불만족스럽다' '정직하지 못하다'와 같은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신' 의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의식은 학생이든 성인이든 공통적이었으며,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한국 정치=불신'으로 연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정치인 자질 부족'이라든가 '부정부패' '과별주의' 등 부정적인 표상들을 갖고 있어, 한국

정치를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 지도자를 존경은커녕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가의 부정부패에 관련된 부정적인 표상은, 선행연구(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덕웅, 1994; 한덕웅, 강혜자, 2000)와 일치했다.

비단 정치에 대해서만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9%가 부정적인 지각(표 3 참고)을 하였다. '불안'(30.4%)하다든가, '불경기'에 대한 인식,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비관' 등, 부정적인 표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은 일부에 불과(15.1%) 하였다. 물론 세계 경제가 거미줄처럼 상호 얽혀 있는 구조에서 한국의 경제문제를 국가 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인 정치상황이나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국 경제를 어렵게 지각하는 것이 한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성인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을 질문하였을 때,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반응이 IMF시대에는 가장 높은 반응율(56.6%)을 보였고(김의철, 박영신, 1999), IMF 시대 이후에도 '가정생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29.8%)을 나타내었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2004년 현재 비록 한국 사회가 'IMF 시대'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불경기라는 경제

위기 인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박은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지각을 분석한 결과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학생이든 성인이든 10명 중 7~8명 정도는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표 4 참고).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것은 '부정부패'(22.7%)였다. 이외에도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 의해 지각되고 있었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이렇게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한국 사람에 대한 지각에서는 '이기적' '도덕성 결여' '조급성' '체면/ 권력지향'으로 표현된 부정적인 표상이 58.6%이고 '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으로 대표되는 긍정적인 표상이 그 나머지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정치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보다는 한국 사람에 대한 표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표 6 참고).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 사람이 인정이 많고 근면하다는 긍정적인 표상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예컨대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으로서 한국 사람의 정을 포함하는 전통문화라든가, 근면성을 포함하는 강한 의지력과 끈기가 대표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 한국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을 바람직하게 표상하고 있음을 밝힌 정태연과 류원정(2004)의 결과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지각

은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러한 긍정적 지각의 핵심은 '자부심'(25.0%)이었고, 이 외에도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성'에 대한 인식에 있었다(표 5 참고). 물론 '주체성 상실' '문화 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 정치 경제 사회 사람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표상이 더 많은 것에 비해, 유일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은 한국 사람들이 긍정적인 표상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표상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있고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평가 외에는, 특별히 한국 정치와 경제 사회 면에서 부정부패와 불안 등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조차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질문해 본다면, 그 답이 그리 긍정적이기 어렵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담당하지 못한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이미지를 창출해 내기는 곤란하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나 '도덕성 결여'와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닌 '정직함'이나 '투명성'이 확보된 사회, '불안'과 대조되는 '안정성'있는 사회, 그래서 '불신'이 최소화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의 토착적인 장점들, 즉 인간적인 정이 흐르고, 근면성을 유지하며, 오랜 전통을 지닌 아름다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활동들을 고무하는 사회풍토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외국 사람들도 경외심을 갖고 우리 사회와 문화를 접근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와는 질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투명성'의 확보가, 우리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당위적으로 주장되는 만큼 실천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은영(2001)이 61개국의 자료를 기초로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 국가가 개인주의적일수록, 권력거리(권위주의)가 작을수록, 불확실성 수용 경향이 클수록, 여성적일수록 국가투명성이 높았다.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권위주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지닌 문화인데다, 최근에는 경쟁적인 풍토 속에서 여성적 문화성향이 성취지향의 남성적 문화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투명성에 관한 불리한 문화적 조건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문화적 특성의 긍정적인 면들을 잘 조합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현재 국민들이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줄이고 투명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부정적 사고와 현상을 긍정적 사고와 현상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집단효능감(박영신, 김의철 역, 2001; Bandura, 1997)이 요구된다. 그런데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3)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관계효능감이나 사회성효능감 및 어려움극복효능감 등 개인효능감에 비해서 집단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가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에 비해 가장 낮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들보다 정치효능감이 훨씬 낮았다(Kim, Helgesen, & Ahn, 2002). 한국의 정치문화와 사회 변화를 위해, 앞으로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정치효능감과 신뢰의식의 증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은 무엇인가?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신뢰의 문화심리학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는 시각이 싹 터왔고, 예컨대 한국 사람들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신뢰의식(김의철, 박영신, 2004; 박영신, 김의철, 2004b; Lee, Park, & Kim, 2004; Park, Kim, & Lee, 2004) 기업 조직에서 신뢰의식(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김명인, 이영석, 2000) 등 경험적 자료를 통해, 신뢰의식을 한국인 토착심리의 맥락에서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이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의식을 분석하여 볼 때, 관계주의 문화가 그 기반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을 신뢰로운 사회라고 지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30.2%)였다. 즉 어떤 구체적인 '가능성'이나 '한국인의 인간미'나 '한국인의 노력'이나 '살기 좋은 사회'라든가 '긍정적 변화'의 징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한국을 신뢰한다는 반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조직이나 사회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은,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예컨대 평범한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2004b)에서 뿐만 아니라, 일탈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에서조차도,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고 있었다. 또한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 관계, 학부모-교사관계와 같은 인간관계(김의철,

박영신, 2004)에서, 심지어 직장의 상사-부하관계, 동료관계(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김명언, 이영석, 2000)에서도 관계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확인되었다.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 망 속에서 연결된 관계 자체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의 신뢰 기반이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받는 대상자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신뢰보다는 관계에 토대한 신뢰의 형성은, 한국 사회가 관계주의 문화(김의철, 2000)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관계와 정서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개인주의와 합리성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정서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서가 아니라, 개인들을 서로 묶어주는 관계적 정서들이다(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토착심리가, 한국 사람들의 조직과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결론이다.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의 심리적 기반은 무엇인가?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람들의 토착적인 신뢰의식(김의철, 박영신, 2004)과 결부하여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치인 불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 비리'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 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이기주의' '강대국의 영향'과 같은 요소들이 나타났다. 즉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신과, 사회 전반에 도덕성과 원칙 부재로 인한 비리 현상을, 불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과반수의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국 사

회를 불신하는 사람 두 명 중에 한 명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부패 및 비리를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의 기반이 도덕성 차원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반응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한 김묘성, 김의철과 박영신(2002)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국회의원에게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청렴결백'(31.8%)을,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으로는 '부정부패'(50.4%)를 가장 많이 지적한 결과를 여기에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는가를 새삼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을 투표하는 기준으로서,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었다(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3). 고등학생과 아버지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점으로 '부도덕한 정치 지도자'(23.1%)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두번째로 '부정부패/ 비리 만연'(20.3%)이 언급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으로 '정치개혁'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정치지도자의 부정부패가 개인적인 도덕성 결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가장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2004)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핵심적인 이유로서 성실함과 정직함 및 존경함은,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도덕성에 초점을 둔 사회적 표상이었다. 능력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유교문화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교문화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군자는 단순히 학업적인 성취만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인격적인 덕(德)을 쌓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 직업분야에서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지적인 측면이 인품으로서의 덕(德)과 통합되고 겸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자는 군자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덕을 인(仁)이라고 하였다. 또한 능력차원보다 도덕성 차원을 강조하는 시각은, 결과중심적인 사고보다는 과정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의 성취의식에 대한 일련의 분석(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Kim & Park, 2003)에서도,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능력이 아니고, 자기조절로 대표되는 노력이나 인내 의지 등이 밝혀졌다. 한국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사람들의 가치의식 속에는 유교 전통에 뿌리를 둔 내용들이 상당수 남아(Kim & Park, 2000)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뢰의 이유로써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강조는, 가정윤리가 바로 서고 나서 점차 사회윤리가 확립될 수 있고, 성(誠)실함을 통해 수기(修己)를 해야 한다는 유교철학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재분석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정치인의 부정부패나 사회 각 분야에서의 비리들로 인해 도덕성 결여를 지각하게 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형성하게 되는 연결고리를 밝혀 볼 수 있다.

기타 논의점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한 두개의 주된 문제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관심을 끄는 결과들이 있었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구성하는 개념 중의 하나로, 연고주의가 확인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을 분석(표 4 참고) 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의 78.2%를 차지하는 부정적 지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개념 범주로서, '부정부패,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과 더불어 '연고주의'가 부각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연고주의는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상진, 박희량과 박무익(1999)의 연구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선택 과정에서도 연고주의가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인의 지역 연고주의는 '우리 편으로 느껴지는 후보' '나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후보'와 같은 '우리 편 의식'이라는 심리적 매개과정을 통해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신호(2000)도 한국 사람들의 투표행동에서 연고주의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이종한(1994)은 연고주의의 심리 사회적 근간을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고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결고리에 기초한 인간관계 중심의 사회적 기제보다, 개인의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원칙을 고수하는 사회정신을 제안하였다. 나아가서 연고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정신과 기제를 모색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직장인의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의식: 토착심리학

- 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51~152.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 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99~120.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7~333.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세대 투표행동을 통해 본 정치의식 차이 분석: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7~168.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24.
- 김의철. (2004). Development of trust in individualistic and relational cultures: Implication for political culture and civil societies.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5~146.
- 김의철, 박영신 (1999).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 (2003). Managemen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ultur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role of trust and leadership. 한국기업경영학회 2003년도 기업경영대상 시상식 및 하계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1~63.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오나라. (2003). 한국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반미감정의 심리 사회 문화적 토대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39~178.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4. 서울: 교육과학사. 山岸俊男(1998). 信頼の構造: と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나은영. (2001).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들과 대인 간 신뢰: 61개국의 자료 2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65~90.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5.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c).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신뢰의식: 청소년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5~136.
- 박영신, 김의철 역.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3.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은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대학생의 한국사회 삶의 질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1~162.
- 안신호. (2000).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경향성과의 관계 및 기저 동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45~180.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4~339.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세대 대의 정치효능감, 신뢰의식과 정치참여행동 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9~170.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세대 대의 한국 사람과 공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7~158.
- 이종한. (1994). 연고주의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201~219.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정태연, 류원정. (2004). 남녀 아동 및 성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21~139.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채정민, 이종한. (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79~101.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한국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속의 신뢰와 불신의 기반으로서의 마음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17.
- 최상진, 박희량, 박무익. (1999). 한국 대학생의 대통령 후보선택에 관여되는 한국적인 Parameter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41~155.
- 한덕웅. (1994).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5~37.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Kim, U. (2001). Ethnography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In H. S. Aasen, U. Kim, & G. Helgesen,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Korea: Psychological, political, and cultural*

- perspectives* (pp. 245~278). Seoul: Kyoyook-kwahak-sa.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 views. In U. Kim, H. S. Aasen, & S. Ebadi (Ed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im, U., Helgesen, G., & Ahn, B. M. (2002).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1(2), 317~35.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U., & Park, Y. S. (2003). Chapter 9.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ume 3* (pp. 171~195).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er.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464.
- Lee, S. M., Park, Y. S., & Kim, U. (2004). Formation and perception of parent-child trust and distrust: The cas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invited symposium of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August 8-13, Beijing, China.
- Park, Y. S., Kim, U., & Lee, S. M. (2004). The basis and evolution of trust in relational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August 8-13, Beijing, China.

1 차 원고 접수일 : 2004. 10. 3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4. 11. 17

The social representation and trust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social representation and trust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using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Respondents were asked to write in an open-ended questionnaire their perception of the following five aspects: Korean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people. They were then asked to report why they trust or distrust Korean society. A total of 1,064 respondents (218 middle school students, 200 university students, 218 father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218 mother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210 teac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April to June, 2003. The results indicate that 94.5% of Koreans view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and politicians as being corrupt, inept, factional, and lacking in integrity. A vast majority (84.9%) recognize the existence of systemic problems in the Korean economy. A total of 78.2% see problems in Korean society being dominated by selfishness, factionalism, conservatism, and social uncertainty. For Korean culture, a majority of respondents report being proud of its cultural tradition, accomplishment, and creativity. At the same time, 45.7% report loss of cultural identity and pride due to external influences.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report negative aspects of Korean people (i.e., selfish, lack of morality, rushed, and overly focused on their social image), while nearly half of the respondents report positive aspects of Korean people as being compassionate, cooperative, good-natured and hard-working. As for reason for trusting Korean society, around a third report "because it is our country," followed by its future potential, and the good-nature and willingness of Korean people to work hard. The reasons for distrusting Korean society is the dishonesty politicians, corruption, institutional ineptness, and economic uncertainty. These results indicate a low level of collective efficacy in influencing and affecting change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Social representation, Korean society and people, trust, distrust, indigenous psychology, relational culture, morality.